

올해 실업급여 역대 최대 전망…11월까지 11조

작년보다 6119억 증가

1인당 일자리 '0.43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대장주' 알테오젠, 코스피로
2위 에코프로비엠도 재추진설

코스다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이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코스피 이전상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코스다 상장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알테오젠은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코스다 상장폐지 및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알테오젠은 지난 8월 코스피 이전에 대한 계획을 주주 및 투자자들과 공유했고, 그 다음달인 9월 이전상장을 위한 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을 선정하는 등 관련 준비를 진행해왔다.

회사는 향후 유기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후 상장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보다 0.33% 오른 45만8000원에 장을 마쳤다.

알테오젠 시가총액은 24조3057억원으로, 코스다 전체 시가총액 501조270억원의 4.89%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하면 코스다 전체 시가총액의 약 5%가 줄어드는 셈이다.

코스피에 상장으로 부진했던 코스다 시장은 지난달 말 정부가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상승세에 시동을 걸었다.

코스닥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정부가 코스다 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온 지난달 28일에는 같은 달 17일(902.67) 이후 9거래일 만에 900선을 회복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코스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와 연기금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코스다 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 부동산으로 못 가는 개인 투자금을 끌어오거나 연기금의 코스다 투자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코스피 '불장'에도 제자리걸음을 해온 코스다 이를 계기로 1000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금씩 커졌다.

전군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스다는 정부의 코스다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커지고 우호적 투자 환경이 조성되면서 매수세가 모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대장주 알테오젠이 코스다를 빠져나가게 되면서 '천스다'(코스다 1000) 달성을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스피에 비해 규모가 적은 코스다로 선 대장 기업 이탈에 따른 여파가 그만큼 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알테오젠 이전으로 다음 대장주가 될 시가총액 2위 에코프로비엠도 코스피 이전상장 재추진설이 나오며 코스다 시장에 먹구름을 드리운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이전상장을 의결했고, 같은 해 11월 27일 한국거래소에 이전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9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6억원(6.0%) 줄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 밑으로 떨어진 건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구직급여가 9개 월 연속 월 1조원 넘게 지급되며 역대 최장 1조원 이상 지급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지급액은 11조 4715억원이다. 지난해 1~11월 지급액

(10조8596억원) 보다 6119억원 많다.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실업자가 많았던 2021년 1~11월 누적액이 11조24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2월 지급액까지 더하면 올해 구직급여 누적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

족된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5만4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만8000명(1.1%)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은 11월 기준으로 볼 때 2003년 11월(6만1000명)

이후 가장 낮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091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0만8000명 늘면서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다.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4000명씩 감소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꾹히는 제조업과 건설업 가입자는 각각 1만6000명씩 줄었다.

제조업은 수출과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6개월 연속 내림세이며 감소 폭은 더 커지는 추세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5000명으로 전자·통신 증가 폭은 확대됐으나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기기 감소 폭이 커졌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4만7000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8개월 연속 감소세다. 업황 불황이 주된 이유다.

남성 가입자는 860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3000명, 여성 가입자는 705만2000명으로 13만5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7만8000명)·50대(4만2000명)·60세 이상(17만1000명)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늘어난 데 비해 29세 이하(9만2000명)와 40대(2만

1000명)에서는 인구감소 등 영향으로 줄었다.

고용서비스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8000명(3.3%) 감소했다.

고용24 신규 구직 인원은 지난달 37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2000명(3.3%) 증가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는 0.43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0.46)보다 낮은 수준으로, 11월 기준 1998년(0.17) 이후 최저치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현대차그룹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WHE 2025)'에 참여해 전시를 마무리했다. WHE 2025는 2020년부터 개최된 국내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와 기존의 '수소 국제 콘퍼런스'를 통합한 행사로 올해 처음 열렸다.

현대차그룹, 수소박람회 'WHE 2025' 성료

나흘간 2만5000명 방문…7개 그룹사 최신기술 선봬

현대차그룹은 지난 4~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WHE 2025)'에 참여해 전시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WHE 2025는 2020년부터 개최된 국내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와 기존의 '수소 국제 콘퍼런스'를 통합한 행사로 올해 처음 열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WHE 2025)'에 참여해 전시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WHE 2025는 2020년부터 개최된 국내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와 기존의 '수소 국제 콘퍼런스'를 통합한 행사로 올해 처음 열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WHE 2025)'에 참여해 전시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WHE 2025는 2020년부터 개최된 국내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와 기존의 '수소 국제 콘퍼런스'를 통합한 행사로 올해 처음 열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WHE 2025)'에 참여해 전시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WHE 2025는 2020년부터 개최된 국내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와 기존의 '수소 국제 콘퍼런스'를 통합한 행사로 올해 처음 열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WHE 2025)'에 참여해 전시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WHE 2025는 2020년부터 개최된 국내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와 기존의 '수소 국제 콘퍼런스'를 통합한 행사로 올해 처음 열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WHE 2025)'에 참여해 전시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WHE 2025는 2020년부터 개최된 국내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와 기존의 '수소 국제 콘퍼런스'를 통합한 행사로 올해 처음 열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WHE 2025)'에 참여해 전시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WHE 2025는 2020년부터 개최된 국내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와 기존의 '수소 국제 콘퍼런스'를 통합한 행사로 올해 처음 열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WHE 2025)'에 참여해 전시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WHE 2025는 2020년부터 개최된 국내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와 기존의 '수소 국제 콘퍼런스'를 통합한 행사로 올해 처음 열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WHE 2025)'에 참여해 전시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WHE 2025는 2020년부터 개최된 국내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와 기존의 '수소 국제 콘퍼런스'를 통합한 행사로 올해 처음 열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WHE 2025)'에 참여해 전시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WHE 2025는 2020년부터 개최된 국내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와 기존의 '수소 국제 콘퍼런스'를 통합한 행사로 올해 처음 열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WHE 2025)'에 참여해 전시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WHE 2025는 2020년부터 개최된 국내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와 기존의 '수소 국제 콘퍼런스'를 통합한 행사로 올해 처음 열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WHE 2025)'에 참여해 전시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WHE 2025는 2020년부터 개최된 국내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와 기존의 '수소 국제 콘퍼런스'를 통합한 행사로 올해 처음 열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WHE 2025)'에 참여해 전시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WHE 2025는 2020년부터 개최된 국내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와 기존의 '수소 국제 콘퍼런스'를 통합한 행사로 올해 처음 열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WHE 2025)'에 참여해 전시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WHE 2025는 2020년부터 개최된 국내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와 기존의 '수소 국제 콘퍼런스'를 통합한 행사로 올해 처음 열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WHE 2025)'에 참여해 전시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WHE 2025는 2020년부터 개최된 국내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와 기존의 '수소 국제 콘퍼런스'를 통합한 행사로 올해 처음 열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WHE 2025)'에 참여해 전시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WHE 2025는 2020년부터 개최된 국내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와 기존의 '수소 국제 콘퍼런스'를 통합한 행사로 올해 처음 열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WHE 2025)'에 참여해 전시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WHE 2025는 2020년부터 개최된 국내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와 기존의 '수소 국제 콘퍼런스'를 통합한 행사로 올해 처음 열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WHE 2025)'에 참여해 전시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WHE 2025는 2020년부터 개최된 국내 수소 산업 전시회 'H2 MEET'와 기존의 '수소 국제 콘퍼런스'를 통합한 행사로 올해 처음